

“함께 위기 극복하기엔 너무 늦었다”...사실상 결별 수순

안철수 최후통첩...野분열 가시권

핑퐁게임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 내내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별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안 전 공동대표는 6일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쳐 총선을 앞둔 야권의 분열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내 권력지도는 물론 야권 지형 박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안 전 대표 측 핵심인사는 “안 전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당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한계에 봉착한다면 이제는 ‘액션’만 남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선택지는 탈당과 백의중군인데, 백의중군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핑퐁 주고받던 문·안, 끝내 결별하나=문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으며 당 내내 해법 찾기를 모색했지만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표는 지난달 18일 광주 강연에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로 가자고 제안했지만 안 전 대표가 거부했다. 대신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문·안 모두 출마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고, 문 대표는 지난 3일 “전당대회는 해법이 안 된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4일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안 전 대표는 이날 “이제는 이것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문 대표에게 혁신전대를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文대표 혁신전대 수용 어려울 듯

측근 “한계 봉착...액션만 남아”

주류 당혹, 비주류 오늘 회동

이로 인해 문 대표의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시간을 달라며 죽음을 피했지만 문 대표 주변에서는 혁신전대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도 탈당에 무게를 두고 명분 축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당 혁신 방법의 시각차에서 나온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잠재적 대권 경쟁자라는 위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분열 현실화하나=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이날 회견을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류 측에서는 당혹해하면서도 이제 탈당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는 문 대표가 혁신전대를 수용하는 것만이 당을 분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비주류는 7일 오전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호 의원은 “혁신전대마저 거부되면 안 전 대표는 당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당의 총선패배, 죽는 길인데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비주류의 연쇄탈당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무소속 전정배, 박주선 의원 등 당 밖의 신당파와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밝히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전 공동대표가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당무감사원 황주홍·유성엽·신기남 엄중징계 요구

황주홍 “선거 연패 文대표 징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최근 도덕성 논란이나 당무감사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노영민·신기남·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한 징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무감사원은 6일 ‘로스를 아들 구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신 의원은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내고 현재 4선 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볼 때

학교를 방문하고 의원회관에서 범학전문대학원장의 해명을 듣는 것은 학사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시정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8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지난 4일, 최근 현역 평가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 원장은 “당한·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관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두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중 당 선출직공직자위원회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지난 4일 영암서 열린 전남 도당 핵심간부 연수 중 기자간담회를 하고 “문 대표는 일단 선거 패배, 부산 지역구 불출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에 문재인 대표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문 대표의 모든 선거에서 절대적 패배로 절망감을 주고 당의 위상이 극도로 추락했는데도 성실한 유감·책임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해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당의 관계기관이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기국회 이번주 종료...쟁점법안 처리 빨간불 노동법안 등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흘 뒤면 막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주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당장,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재조명을 받게 된 테러방지법과 국회에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상임위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선거구 확정안 마련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9일을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공수표’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은 환경노동위에 상정하며 ‘착점’한 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계획이지만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쟁점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급히...호남 중진의원 찾은 文대표

새정치 중진 임시지도부 제시에 “논의해 보자”

문재인 대표의 주류 진영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 진영의 정면 충돌로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분당은 내년 총선에서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모두 전대 출마를 포기하고 지역 대표성과 합리성을 갖춘 중진들과 일부 외부인사들로 인기를 내년 총선까지로 하는 임시 지도부를 구성, 전당대회에서 이를 추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명 개정 등도 전대에서 처리하면서 사실상 통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도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주류와 비주류 온건파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안이리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호남지역도 중진 국회의원들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문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어떻게 대표를 사퇴하고 또 전대에 나갈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문 대표와 안 전 공동대표가 모두 전대에 출마하지 않고 임시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하자 문 대표가 ‘만나서 논의해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시지도부 구성안이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정치적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다 임시 지도부 참여 인사를 두고 계파 지분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당내 관계자는 “임시 지도부는 사실상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통합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라며 “하지만 정면충돌로 인한 분당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4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

2015. 12. 12(토) ~ 13(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클래식 ABW100_KE/OZ/LJ_R
푸켓 6일

더 나카 오션뷰 풀빌라(2+2)

총상품가 1,7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

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작성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

클래식 AXW100_SQ/KE/QR_H
몰디브 6일

하더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 풀

총상품가 3,763,600원~

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

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

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
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포함.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사: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선택관광에 참가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칭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여행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